

에덤 부찰동(Edme Bouchardon, 1698-1762), <십자가를 안고 있는 예수님>(부분), 1733년, 대리석, 루브르 박물관, 파리, 프랑스

성화해설

원래 이 조각품은 성당이나 경당의 내부 공간을 장식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예수님께서서는 커다란 십자가의 기둥 부분을 양손으로 잡고서 깊이 묵상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몸소 십자가를 짊어지고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고 말씀하셨다.

입당송 집회 36,21-22 참조

제1독서 이사 50,5-9ㄱ

화답송 시편 116(114),1-2,3-4,5-6,8-9(◎9)

◎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 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 나는 주님을 사랑하네. 애원하는 내 소리 들어 주셨네. 당신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니, 나는 한평생 그분을 부르리라. ◎
- 죽음의 울가미가 나를 에우고, 저승의 공포가 나를 덮쳐, 고난과 근심에 사로잡혔네. 나는 주님의 이름 불렀네. “주님, 부디 이 목숨 살려 주소서.” ◎
- 주님은 너그럽고 의로우신 분, 우리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네. 주님은 작은 이들을 지키시는 분, 가엾은 나를 구해 주셨네. ◎
- 당신은 죽음에서 제 목숨을 구하셨나이다. 제 눈에서

눈물을 거두시고, 제 발이 넘어지지 않게 하셨나이다.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 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

제2독서 야고 2,14-18

복음환호송 갈라 6,14 참조

◎ 알렐루야.

- 나는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않으리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게서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에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

복음 마르 8,27-35

영성체송 시편 36(35),8

하느님, 당신 자애가 얼마나 존귀하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신 날개 그늘에 피신하나이다.

사람의 아들



구요비 읍신부 | 프라도회 한국 책임

오늘 복음을 묵상하며 청년시기에 우리가 애독하고 이제
는 고전이 된 소설 『사람의 아들』(이문열작)이 자꾸 떠올
름은 어인 일일까요? 주인공 민요섭은 기성 기독교의 현실
에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 이 사회의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며 자기 나름의 이상적인 종교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거짓 ‘사람의 아들’이라 보고, 외경에만나옴직한인
물인 아하스 페르츠를 참된 ‘사람의 아들’로 제시합니다.

‘만약 그가 빵과 기적과 지상의 권세를 가져왔다면, 그것
으로 지금까지의 고통스런 자유는 같음되고, 인간을 헛된
망설임 없이 옛 동산으로 되돌아가도록 할 수 있다’ (293쪽).

그런데 그의 열렬한 추종자인 조동팔이 정의(正義)의 실
현을 위해 살인 등 극단적인 방법까지도 정당화하는 걸 보
며 회의를 느껴 다시 옛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쓸쓸하고 두렵다는 거였소. 웃지 않고 성내지 않는 우
리의 신,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으며 꾸짖지도 않고
칭찬하지도 않는 우리의 신 그에게 이제 지쳤다는 거요. ...
불합리하더라도 구원과 용서는 끝까지 하늘에 맡겨두어
야 했다고” (310쪽). 이런 스승 민요섭에게 실망하여 조동
팔은 자기 스승을 살해하고 맙니다!

베드로 사도가 속마음으로 고대하는 메시아는 아하스
페르츠가 보여주는 ‘사람의 아들’ 처럼 보입니다. 즉 광야
에서 악마의 집요한 유혹에 시달리던 예수님께서 마침내
‘사탄아, 물러가라’ (마태 4,10)라고 호통치시는데, 오늘은
베드로 사도에게 똑같이 준엄하게 꾸짖으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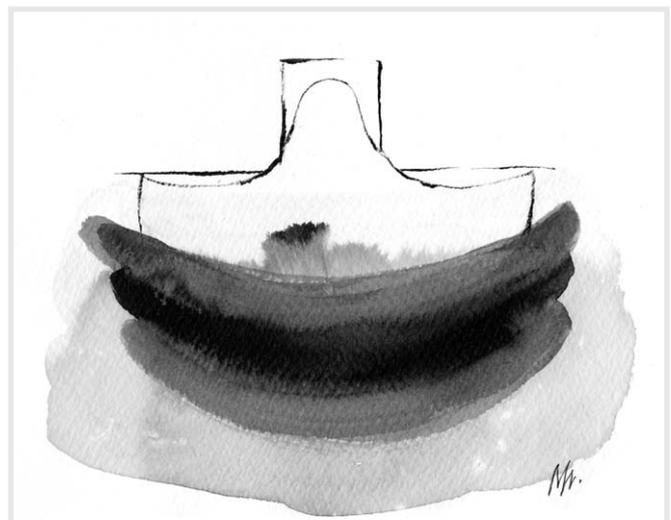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
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33절).

무엇이 베드로 사도로 하여금 이토록 예수님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하고 거부하게까지 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주님께 보인 반응을 떠올려 볼 때(요한 13,8),
베드로 사도는 봉사 받으러 오지 않고 봉사하러 오시는 하
느님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이 십자가의 비천(卑賤)함을 통해 이루어지
고, 하나님을 종의 모습(필리 2,6-8)에서 보지 않으려는 인
간 본연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철학이 도달한 최고의 신(神)은 애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움직이듯이 자신은 움직이지 않고 다른 모든 사물을 움직
입니다(아리스토텔레스). 여기에서 신은 사랑을 받을 뿐 사
랑할 줄은 모릅니다. 하지만 성서가 계시하는 하나님은 이
와는 달리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인
간을 위하여 내어주시기까지 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
다. 예수님은 오늘 당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며
자신의 인성(人性)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神性)을 보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것은 곧 인간적인, 너무나도 인간
적인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인간이 겪는 고통,
특별히 조롱과 모욕과 무시당하고 버림받기까지 하는
인간의 가장 비참하고 낮은 처지까지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
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 (31절).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적어도 이런 주님의 인간
적인 모습에서 내가 좋아하는 어느 한 모습만을 받아들이
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주님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살려야 파
트너, 동반자, 협력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마르 8,29).

야생사과나무가 들려주는 하느님의 살림법



황종렬 레오 | 두물머리복음화연구소

푸르고 아름다운 하늘 아래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통하여 당신의 살림법을 들려 주십니다. 5월 초순 소들을 놓아먹이는 산꼭대기 풀밭에 사과나무 싹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두 해쯤 지나면 풀 뜯는 양떼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자랍니다. 하지만 황소들이 좋아하는 먹잇감이어서 사과나무 가지가 한 뼘씩이나 갠아 먹히고는 해요. 한 20년가량 이렇게 소에게 뜯어먹힌다는군요.

사과나무는 한 가지를 갠아 먹힐 때마다 두 가지를 돌아 나게 하며 옆으로 옆으로 퍼져갑니다. 쉽게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가지들이 뻗뻗하게 자라면서 가지까지 든게 하여 자기를 보호해 갑니다. 이렇게 20년쯤 위로 자라지 않고 옆으로 퍼지면서 자기를 지키던 사과나무는 더 이상 공격받지 않을 중심부에 어린 가지 하나나 둘이 돌아나게 합니다. 그동안 넓게 퍼지면서 응축해 온 생명력을 신생 가지에 쏟아부어 급속하게 자라게 합니다. 나무 아랫부분에 넓게 형성된 가지 무리 위로 사과나무가 본격적으로 자라 오르면, 역할을 다한 밑가지들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하여 이제 더 이상 해칠 수 없는 소들이 우뚝 솟은 사과나무에 몸을 비벼대며 자기 그늘에서 쉴 수 있게 합니다.

사과나무는 산꼭대기에서 겨울 찬바람을 스무 번도 넘게 견딘 강건함으로 당당하게 자기의 생명을 이어갈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하여 자기의 인고를 지켜보며 함께 기도

하였던 새들은 물론, 자기를 뜯어먹었던 소들까지도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합니다. 그리하여 밭 없는 우리 야생사과나무는 저 소들이 자기의 생명을 이어갈 어린싹이 멀리 퍼지게 할 협력자가 될 수 있게까지 합니다(H.D. 소로우, <시민의 불복종> 참조).

민중이여, 농민이여, 가난한 이들과 농민을 사랑하는 시민들이여, 저 야생사과나무는 20년이 지나도록 자기가 하느님께 받은 부름을 잊지 않았습시다. 자기를 먹으면 먹게 하면서, 자기를 준비해 갑니다. 저 사과나무의 가지들처럼 연대하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야생사과나무에게 지혜의 향기를 허락하신 하느님께서 이렇게 연대하는 백성에게도 당신의 사랑과 생명의 향기를 아름답게 뿜어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야생사과나무는 소가 와서 먹으면 소에게 주고, 새가 와서 먹으면 새에게 줍니다. 왜 가져가느냐 이제 그만 먹어라 말하지 않고, 오히려 더 줄 수 있도록 가지를 더 뻗습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살림법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누가 강제로 천 걸음을 가자 하면, 이천 걸음을 가주는 식이지요(마태 5, 41). 배척하면서 자신의 생명력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까지도 품어 안는 한마음으로 묵묵히 같이 가 줄 힘을 키워 가는 민중과 농민, 그런 시민 사회를 동반할 아름다운 교회를 그립니다. 이 높고 푸른 9월, 순교자 성월이요.

생명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배우기 36

자살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여기는 것이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하느님 앞에서 자기 생명의 책임을 져야 한다. 생명의 최고 주권자는 바로 하느님이시다. ...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기독교교리서 2280항>.

“자살은 이웃 사랑도 여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살은 우리가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 가정, 국가, 인류사회와 맺는 연대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자살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사랑에 어긋나는 것이다” <기독교교리서 2281항>.

하루 평균 33명이 자살을 택하는 우리나라는 몇 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7년 통계에 의하면 10~19세 청소년들의 사망원인도 교통사고에 이어 자살이 2위를 차지하고 있고 20~39세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노인 인구의 자살률도 해마다 높아지고 있으며 연령별 자살률은 노인 인구가 가장 높습니다.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과 생명에 대한 책임의식과 고통을 극복하려는 인내심이 낮은 탓이 크지만,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삶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절망하는 이웃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이웃사랑의 정신과 사회안전망 등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현대의 순교, 사랑의 순교

사람 없는 코너에서 내가 담아온 꿀을 가리키며 계산하는 점원이 “서른 개 넣었어요?” 하고 묻길래 대답을 못한 채 그냥 넘어갔다. 집에 와서 “사실은 하나를 더 넣었거든” 이라며 ‘거짓 대답’ 을 하지 않았음을 자랑했더니 아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면서 꺾쩍 뛰는 것이었다. 사실 “사람이 있었으면 하나 덤으로 넣어주세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도 서른 개에 3천 원 하는 아주 값싼 조생꿀이라면서 나의 정당성을 둘러대 보았지만 소용없었다.

“아이 같았으면 당신을 데리고 운전해 가서 꿀 한 개를 돌려주고 오고 싶다” 고까지 하는 그의 말을 듣고, 내심 크게 당황하면서 나는 자신을 돌아봤다. 살아온 생활환경과 방식이 ‘대충대충’ 이었던 것이고, 이런저런 정직하지 못한 생각과 행위로 점철된 생활이었다. 나중에 읽어본 그달 ‘생활말씀’ 중에 이런 대목이 강하게 내 가슴을 찔렀다.

“당신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해서 쾌락, 부도덕성, 낙태, 이혼, 증오, 폭력, 절도 등 세속의 모든 생활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신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절도는 절도인 것이라는 사실. 이것은 참으로 위대한 발견이었다. 생활말씀은 나에게 이렇게 강변하는 것이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느님의 목소리가 있으며, 이에 귀를 기울인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느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즉 참된 사랑과 정의와 순결과 온순함과 가난을 살며, 자신을 벗어나 그분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일단 꿀 한 개를 기워 갚기 위해서 나중에 그 가게에 들러 하나를 뺀 채 같은 값으로 한 번 더 사오기까지

했다. 귀찮고 힘든 일이었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라도 해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고, 고해성사까지 보는 용기를 하느님께 청할 수 있었다.

이달 9월은 순교자성월이다.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목숨까지 바치신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처럼 살다가 그리스도처럼 죽어간 분들이 순교자들이다. 이 거룩한 달을 지내면서 우리도 그분, 순교자들을 닮아 순교자들처럼 살고, 순교자들처럼 죽어야 할 것이 아닌가. 오늘날 총칼을 들고 우리에게 신앙을 위협하는 경우는 없을 테지만, 일상생활에서 매 순간 찾아오는 십자가의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게 마련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수천, 수만 가지 방법들이 있었음에도 고통을 선택하셨다. 이는 우리에게 커다란 희망이고, 고통이 사랑으로 변하는 연금술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즉, 그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 다음에 부활의 영광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우리도 순간, 순간 찾아오는 고통을 피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잘 받아들이면서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닮으려고 한다면, 틀림없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어느새 사랑이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고통은 가득한 일치에 도달하기 위한 연료임을 알게 될 것이다. 자기 자신을 무(無)로 돌리는 고통, 이것이 현대의 순교이다.

오는 19일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펼쳐지는 103위 한국 순교자 시성 25주년 ‘화해, 나눔, 증거의 축제’ 행사장에서 현대의 순교, 사랑의 순교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최홍준 파비아노 | 서울대교구 순교자현양위원회 위원, 한국순교자현양회 회장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그리스도왕 선교 수녀회	9. 20. 14시-17시	성북동 수녀회	011-9386-3241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사랑의 딸회	9. 20. 14시	군포 수녀원	010-6625-0927
마리아의 딸 수도회(마리아니스트)	9. 20. 14시-16시	목동 수도회	011-686-7134	위로의 성모 수녀회	9. 20. 14시	성북동 본원	010-2210-3660
마리스타 교육 수사회	9. 20. 14시	마리스타 교육관	010-2882-6227	한국 성모의 자애 수녀회	9. 20. 14시	계산서원(월명 성모의 집)	010-9407-6219
삼성산 성령 수녀회	9. 20. 14시-17시	수녀원 본원	010-2738-0039				

대구대교구 제9대 교구장 최영수(요한) 대주교 선종



대구대교구 제9대 교구장 최영수(요한, 67세) 대주교께서 지난 8월31일에 선종하셨습니다. 1942년 경북 하양에서 출생하여 1970년 사제수품을 받으셨습니다. 2000년 대구대교구 보좌주교로 임명, 2006년 대구대교구 부교구장 대주교로 임명되었고, 2007년 대구대교구 교구장으로 착좌하셨으며, 지난 8월17일 건강상의 이유로 교구장직을 사임하셨습니다. 9월4일에 장례미사를 거행했으며, 대구대교구 성직자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한국 순교자 103위 시성 25주년 기념 '화해·나눔·증거의 축제'

서울대교구에서는 '한국 천주교회 2백 주년과 103위 순교복자 시성식'의 의미를 묵상하고, 순교자들의 신앙과 삶 그리고 순교의 얼을 이어받아 온누리에 빛을 밝히는 '화해·나눔·증거의 축제'를 엮는다. / 문의: 2269-0413, 4
 · 때: 9월19일(토) 오전 11시~오후 6시
 · 곳: 여의도공원 내 문화의 마당, 잔디마당(기념표석 축복식)

화해와 나눔의 축제	11시~18시	장기·안구·골수기증, 현혈(채혈), 결연(서약) 등
증거의 축제	14시30분~15시	시성 기념표석 축복식 (정진석 추기경 집전)
	15시~17시	시성 25주년 기념 장엄미사 (정진석 추기경과 사제단 공동집전)

이번 주간 기억할 사제와 묘소

- 9월14일 김덕제 치릴로 신부(65세) 1991년, 용인
- 9월17일 이재현 요셉 신부(41세) 1950년, 납치
- 9월17일 백남창 아기비도 신부(30세) 1950년, 납치
- 9월17일 정진구 마티아 신부(30세) 1950년, 납치
- 9월18일 임충신 마티아 신부(94세) 2001년, 용인
- 9월18일 임세빈 요셉 신부(90세) 2003년, 용인
- 9월20일 이문근 사도요한 신부(62세) 1980년, 용산

당고개 성지개발(성당건립)을 위한 2차 헌금 안내

당고개 성지가 재개발로 인하여 황폐화된 상태가 되어 신자들의 기도와 정성을 모아 성당건립 등 당고개 성지를 재조성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연중 제25주일(9월20일)에는 '당고개 순교 성지개발을 위한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한국순교자현양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임명

- 위원장: 최창화 몬시뇰
- 위원(당연직): 안병철·조학문 신부, 박신언 몬시뇰, 윤종국·최현식·권철호·변우찬·이철학·오정형·신원식 신부
- 위원: 김성태 신부, 최홍준, 한홍순, 최철수, 팽종섭, 홍화순,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서울관구,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총원,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총원,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본원, 박준영 몬시뇰, 오지영 신부, 조광, 차기진

순교자의 밤 행사

- 때, 곳: 9월20일(일) 오후 6시, 절두산 순교성지
- 집전: 염수정 주교(서울대교구 총대리)
- 문의: 3142-4434 절두산 순교성지 사무실

주교회의 및 교구청 알림

교구청

탈리다콰센터 청년 자원봉사자 모집

· 내용: 전·의경 미사 전례를 위한 청년 음악 봉사자 모집함(보컬, 키보드 등 전례음악 봉사 중심 우선 모집함) / 문의: 742-9471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안내

· 내용: 노환, 중풍, 치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방문서비스 / 문의: 762-2225 서울 가톨릭재가장기요양기관(노인복지위원회 운영)
 · 대상: 장기요양인정등급 1, 2, 3등급
 · 비용: 건강보험보조 85%, 본인부담금 15%(월 11~17만원 안팎, 월 80시간 이용 기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제15차 학술세미나

· 주제: 우리나라 생명관련 법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 / 문의: 727-2350(www.forlife.or.kr)
 · 때, 곳: 9월24일(목) 오후 7시~9시,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 / 간단한 식사제공

주제발표1	법과 생명(신동일 교수)
주제발표2	우리나라 생명관련법 현실과 문제점(최경석 교수)
지정토론	손영수 교수, 박혜영 교수, 박형욱 교수

제10차 부부여정 운영자 양성교육

· 대상: 일반 부부, 본당에서 부부여정을 운영할 부부, 성직자, 수도자 / 회비: 부부 10만원
 · 때, 곳: 10월10일~11월7일 매주(토) 14시~17시(5주간), 봉천1동성당 / www.ihome.or.kr
 · 문의: 727-2070 사목국 가정사목부

가톨릭 유아교육담당교사들을 위한 생태월례강좌 5

· 주제: 유아를 위한 자연친화교육(조형숙 교수 - 중앙대 유아교육학과) / 회비: 1만원
 · 대상: 유아교육 담당교사 50여명
 · 때, 곳: 9월19일(토) 10시~12시, 명동성당 교육관 305호 / 문의: 727-2283 환경사목위원회

어르신인문학아카데미 - 노년준비교육 3기 모집

· 내용: 멋진 인생 후반기를 위한 교육 및 클럽 활동 / 대상: 55세 이상 서울시민(장소당 60명)
 · 곳: 종로(야간), 도봉동, 등촌1동, 구로3동, 월계동 / 10월8일(목)까지 선착순 접수
 · 때: 10월12일~11월3일 매주(월·목) 15시~17시, 종로(야간): 20시~22시 / www.isenior.or.kr
 · 후원: 서울시 노인복지과, 주관: (사)서울시니어아카데미 / 접수 및 문의: 765-8458

한국교회사연구소 후원회 미사

· 때, 곳: 9월18일(금) 오전 11시30분, 가톨릭회관 소성당(101호) / 문의: 756-1691(내선 1번)

9월 구역(반)장 월례연수

· 내용: 9월 구역(반)장 월례연수는 교구 주관 이 아닌 각 지역에서 주관하는 전문교육입니다. 지역 일정에 따라 교육이 진행되므로, 본당 총구역장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727-2062 사목국 일반교육부

서울가톨릭간병인회 '남여 간병인 양성교육 및 모집'

· 때: 9월22일(화)~24일(목) 9시30분~17시
 · 곳: 교구청별관 5층(522호) / 문의: 928-7185
 · 회비: 7만원 / 선착순 20명(환불 안됨)
 · 계좌: 우리은행 1005-701-131505 (재) 천주교

평화화랑 전시안내

· 전시 및 대관 문의: 727-2336~7

구계숙 수녀 작품전 (마리아, 한국순교복자수녀회)	9월16일(수)~22일(화), 제1전시실
연제식 신부 한국화전 (레오, 천주교구 귀농사목)	9월16일(수)~22일(화), 제2전시실

알림

모임

젊은이 토요 L.D 피정

· 때, 곳: 9월26일(토) 14시-22시, 한강진 수녀원
· 문의: 010-4529-3429 대구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예수수도회 토요 침묵피정(이나시오 기도방법)

· 대상: 35세 미만 청년 / 011-9910-1198(회비: 2만원)
· 때, 곳: 9월26일(토) 9시30분-17시, 홍지동 수녀원
순교자들의 향기를 따라 도보성지순례

· 대상: 34세 미만 미혼여성(주최: 스승 예수 제자 수녀회)
· 때, 곳: 9월20일(일) 9시, 명동성당 / 016-9876-0418

14-A지구 성령쇄신봉사회 순교성월 대피정

· 강사: 배은하 신부(미사·안수) / 011-8004-9546
· 때, 곳: 9월14일(월) 9시30분-17시, 시흥동성당(중식제공)

작은 예수회 치유 기도회(문의: 016-309-0048)

· 미사: 박성구 신부(치유: 이명환, 문진화)
· 때, 곳: 매주(화) 13시-17시, 작은 예수회관(전철 5·7호선 군자역 6번 출구, 농협 지하)

후암성당 성령기도회 은혜의 밤

· 때: 9월16일(수) 오후 7시30분-10시
· 곳: 후암동성당 / 강사: 이상기 회장
· 문의: 319-2911, 016-397-5516(회비없음)

예수회 서울피정(문의: 718-3896, 7)

· 주제: 뱀갈이의 그림수다(“예, 주님” 이라고 답하기까지)
· 때, 곳: 9월16일(수) 13시30분-17시, 서강대이나시오관 성당(개인 컵 지참) / 강사: 배영길 신부

신약성경 통독피정

· 때: 9월25일(금) 14시-27일(일) 13시 / 회비: 10만원
· 곳: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주최) 본원
· 문의: 055)351-2285-6, 011-758-3572

목상 관광 기도 피정

· 미사: 신원식 신부 / 016-332-8789) 가르멜 동정녀회
· 때, 곳: 9월20일(일) 14시-17시, 가톨릭 출판사 신관 8층(전철 2·5호선 충정로역 5번 출구, 직진 2번)

10지구 성령기도회 치유피정

· 강사: 에프렐 수녀, 이해봉(회비없음)
· 때, 곳: 9월14일(월) 14시-17시, 오금동성당(전철 5호선 마천행 방이역 하차 1번 출구) / 010-479-7234

성심교육관 순교자성월 2박3일 무료피정

· 주제: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로마 8, 35) / 031)262-7600
· 때, 곳: 9월18일(금) 오후 6시30분-20일(일) 오후 3시, 성심교육관(성심기도원)

서울대교구 철야기도회 성령쇄신봉사회 목시록의 밤

· 내용: 미사, 요한목시록 강의, 치유기도, 안수, 고해성사(강사: 김명희, 이해봉) / 867-7900
· 때, 곳: 9월25일-10월30일 매주(금) 22시-4시30분(6주간), 동성고등학교(전철 4호선 혜화역 1번 출구)

대건 아프리카 선교후원회 기도모임(문의: 757-1416, 7)

열린 기도모임	내용: 말씀, 목상기도와 찬양, 은혜의 시간, 안수, 미사 때: 매주(목) 12시30분-17시30분 곳: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 / 대상: 누구나(회비없음)
월요 철야	때, 곳: 매주(월) 22시-3시30분, 철야 성전(전철 5호선 송정역 3번 출구 송정환의원 지하 1층)
성모승 2000번	때, 곳: 매일 둘째·넷째(토) 10시-17시, 철야 성전(전철 5호선 송정역 3번 출구 송정환의원 지하 1층)

직 원 모 집

평화신문 사원 모집(문의: 2270-2525~7)
· 분야: 독자관리(내근)-신입 / 계약직 0명
· 서류: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소정양식),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누리방(www.pbc.co.kr) 참조
· 접수: 9월21일(월)까지(도착분까지 유효함)

☞교회단체 '알림' 게재 안내
· 전화: 727-2033 / 팩스: 753-6006
· E-mail: jubo@seoul.catholic.or.kr

가정선교회 2009년(6차) 돕는배필 피정

· 때, 곳: 10월10일(토)-11일(일), 상지피정의 집
· 강사: 정원순 신부, 이현주 회장, 김영재 교수, 이정미·김미희 선생 / 문의: 923-3547

교 육

부산 가톨릭대학교 2010학년도 수시 1차 모집

· 때: 9월9일(수)-13일(일) / 051)510-0701-6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cup.ac.kr) 참조

건강한 부모, 행복한 가정을 위한 강좌

· 회비: 15만원 / 주최: 돈보스코 영성 사목연구소
· 때: 10월8일-12월24일 매주(목) 12주(2시간씩)
· 문의: 011-9923-5026 / www.dbyrn.net

미래사목연구소 선교훈련 시그마코스 14기

· 대상: 사목위원, 선교에 관심있는 모든 교우(개인 또는 단체) / 031)986-7141, 011-9124-7174
· 때, 곳: 9월18일(금)20일(일), 기도의 집(인천 가정동)

평화심리상담소 아동 미술·놀이치료

· 내용: 불만스러워 큰소리로 화내고, 신경질, 짜증이 많아 징징대며 울고 빠지는 아동들의 문제를 해소해 주는 미술·놀이치료
· 문의: 775-4831, 2/수시접수(전화예약 후 상담)

행복한 특강

· 주제: 분노와 상처를 풀어 행복으로 나아가기
· 강사: 박영호 신부 / 회비: 1만원(당일접수 가능)
· 때, 곳: 9월14일(월) 10시30분-16시, 곧뎀밭알 프란치스코 수도회(한남동 단국대학교 옆) / 031)902-0695

프란치스코 영성연구소(대중교통 이용, 중식제공)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 대상: 직장이나 가족 관계에서 관계 개선을 간절히 원하는 분(회비: 40만원·선착순 12명) / 강사: 성승연(심리학 박사, 상담심리학 교수, 상담심리전문가)
· 때, 곳: 9월24일-12월10일 매주(목) 19시-22시 총12회(36시간), 가톨릭대 아동·청소년·가족 상담센터(주최)-전철 2호선 홍대입구역 1번 출구 / 3143-2830, 1

한국가톨릭여성연구원 열린강좌 및 워크숍

· 문의: 010-9734-0090 신창귀, 2164-4804 사무국

강좌	중년기 미술치유와 가톨릭 영성 / 강사: 신창귀 선생 9월19일(토) 14시30분-17시, 정동품사랑
워크숍	가톨릭 영성으로 함께하는 미술치유 / 강사: 신창귀 선생 9월23일부터 매주(수) 14시-16시30분(8주간) 정동품사랑(세마나실) / 회비: 16만원(선착순 15만원)

골롬반 선교센터(문의: 953-0613)

· 곳: 전철 4호선 성신여대 입구역 5번 출구, 도보 2분

면담	매주(수) 13시-17시, 19시-21시(예약필수)
고해성사	한 사람당 30분 정도 성사불수 있음
단체피정	1일 피정(20명 이상 가능)
장소대관	강당 100명 수용 / 방 30명 숙박 가능
심리상담	이종승 신부 외 4명

전·진·상 영성사목센터(문의: 726-0700)

치유를 위한 성경묵상	대상: 교우 / 12주 9월23일-12월9일 매주(수) 10시-12시
성경치유피정	9월24일(목) 9시30분-17시
화(火)를 다스리는 치유피정 4차	미리등록 요망, 선착순 12명
불어성경	9월19일-12월26일 매주(토) 10시-12시(15주) / 사도행전 묵상, 나눔(독해가능자) / 강사: 노정혜 플랫폼 선생(AFI)

종로성당 여사무원 모집(문의: 765-6101)

· 대상: 세례 받은지 3년 이상, PC(한글, 엑셀) 및 회계 가능한 분(경력자 우대) / 9월20일까지 접수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주민신부추천서 / 종로구 인의동 167번지(우: 110-410)

작은예수회 실버타운 직원모집

· 대상: 해당 자격증 소지자로 3년이상 유 경험자
· 분야: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한식조리사각 1명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소재: 경기도 가평군 하면 마일리) / 777-6444(팩스: 777-8815)

월례신앙강좌(한국 그리스도사상연구소)

· 주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신비체험
· 회비: 4만원(학기), 2만원(수도자) / 031)227-7857
· 때, 곳: 9월-12월 매월 넷째주(금) 10시30분-12시

9월25일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신비체험 I	
10월30일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신비체험 II	강사: 고계영신부
11월27일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신비체험 III	(작은형제회)
12월18일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신비체험 IV	

모 집

그라시아스 핸드벨 콰이어 단원모집

· 때: 매주(월) 연습 / 문의: 019-246-9708 서로사
가톨릭 어린이발레단 및 어린이 한국 무용단 단원모집

· 대상: 유치부, 초등부 / 곳: 독립문 전철역 근처
· 문의: 010-4501-4161 성바오로수도회(안젤라카무용단)

미사

성가정임양원 후원회 미사

· 때: 9월20일(일) 오전 11시
· 곳: 성가정임양원 성당 / 문의: 764-4741~3

복음화학교 후원회 월례미사

· 때, 곳: 9월17일(목) 오전 11시30분, 가톨릭회관 7층 / 내용: 미사(이준식 신부)와 친교
· 문의: 753-8765 새천년 복음화사도회

마텔암재단 가족 가을 미사

· 대상: 마텔암재단 가족 및 자원봉사자·후원자·교우, 기타 희망자 / 722-6793, 010-3115-6327
· 때, 곳: 9월22일(화) 14시, 명동성당(소성당)

살레시오 월례 영성 강좌와 미사, 안수

· 주제: 영성생활이란?(지도: 김보록 신부)
· 때, 곳: 9월14일(월) 10시-12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문의: 848-9932, 011-711-9928

안내

바로로말 서원, 서강 예수회센터 개원

· 곳: 서강대학교 후문쪽 예수회 센터 1층
· 축복식: 9월22일(화) 11시 / 문의: 779-3793
· 이메일: fsp170@fsp.or.kr

전·진·상 호스피스 / 완화의료센터

· 보건복지가족부, 서울시 지정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 문의: 802-9313 전진상의원(시흥)
· 홈페이지: www.jeonjinsang.or.kr

제주 관광을 원하는 교우들에게

· 제주도의 관광 및 성지를 안내하고 차량·호텔·펜션·예약 가능함 / 문의: 064)758-6476, 010-4566-6476 제주교구 운전기사 사도회

성심 가족 심리상담센터 개인 및 집단상담

· 아동(심리검사, 놀이치료, 학습치료), 청소년(진로탐색)
· 아동·청소년·성인심리검사 및 상담(인간관계, 가족, 신앙, 자녀문제 현재의 심리상태 분석 및 자신이 성격분석 후 전문가에 의한 상담 진행) / 544-1617

서초여성회관(문의: 522-0291, 2)

무료취업알선	구인·구직 상담 및 연계(내선 238)
서리품	저소득여성돕기(내선 253) 물품후원 및 재활용품
니눔터	기증(의류, 생활용품 등) / 전철 2호선 방배역 1번 출구

한국가톨릭문화원 직원모집

· 대상: 세례받은 여교우 / 문의: 1577-3217
· 접수: 우편·이메일(peter208@hanmail.net)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삼곡동 130-6 화신오피스텔 311호)

중계본동성당 관리인 모집

· 대상: 세례 받은지 3년이상 된 남교우(가스, 소방, 전기관련 자격자 우대) / 3391-7900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 주민신부추천서
· 접수: 9월23일(수)까지(제출된 서류는 반환 안됨)

평화방송 · 평화신문은 매주 화요일에 은인과 후원자들을 기억하며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평화방송 텔레비전

평화방송TV 가을 프로그램 개편

2009년 9월14일, 평화방송 TV가 확 달라집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신설 프로그램

PBC 매거진, 사제의 길을 묻다 / 차동엽 신부의 행복선언-팔복 / 전광진 신부의 교회이야기 / 기획강좌 신앙의 길 행복의 조건 / 김길민 신부의 아하! 그렇군요 / 활력 충전 오늘도 건강하게 / 박용식 신부의 예수님 흉내 내기 / 정의철 신부의 전례 맛 듣이기 / 영성의 개척자들, 드라마 신부님은 해결사(시즌 3) / 주교님 만나고 싶었습니다(11월 편성).

· 자세한 방송 내용과 시간은 홈페이지(www.pbc.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평화방송 라디오

교회음악으로의 초대

거룩한 주일,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인 교회음악과 함께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 시간, 바로 평화방송 라디오의 <교회음악으로의 초대>입니다.

‘교회음악’ 하면 접하기 어렵다거나 일부 마니아층을 위한 음악이라는 편견을 갖기 쉽지만 신앙인으로서 음악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교회음악입니다. 주일 오전 6시5분부터 8시까지 진행되는 1·2부는 가톨릭대 교회음악대학원 원장 백남용 신부가 진행하고 오후 2시5분부터 4시까지 방송되는 3·4부는 현재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에서 오르간 실기와 즉흥연주를 강의하고 있는 김윤희 씨가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 그 위대한 여정을 따라’ 터키-그리스 크루즈 성지순례

- 순례 일정: 10월21일~31일(10박11일)
- 순례 여정: 그리스-터키(아테네-코린토-이스탄불-미코노스-파르모스-에페소-로도스-크레타-산토리니)
- 순례 경비: 378~438만 원(객실에 따라 4가지)
- 특전: 성인 2명·어린이(16세 이하) 1명 예약시 어린이 100만원 할인(3인 1실 사용)
- 문의: 2266-1591~2 평화신문 여행사

평화방송 · 평화신문은 바오로 사도의 위대한 발자취를 뱃길로 따라 떠나는 제5차 터키-그리스 크루즈 성지순례를 마련합니다.

2009년 마지막 크루즈 순례로 준비한 이번 성지순례는 바오로 사도의 발자취가 서린 그리스 아테네, 코린토, 에페소 등과 함께 사도 요한이 묵시록을 쓴 파르모스 섬도 순례합니다. 아울러 터키 이스탄불과 지중해(에게해)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인 미코노스, 로도스, 크레타, 산토리니 등을 여행합니다.

유럽오페라단 주역가수 초청 ‘오페라 갈라 콘서트’

- 입장권: R석 8만 원, S석 6만 원, A석 4만 원, B석 2만 원
- 티켓예매: 1544-2344(www.interpark.com) - ‘서울주보할인’ 권중 선택



유럽 정상 오페라 무대에서 주역 가수로 활동하는 한국인 성악가를 만날 수 있는 ‘오페라 갈라 콘서트’가 9월21일(월)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있다. 지휘자 금난새가 이끄는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임세경, 이정원, 한명원, 손혜수가 오페라의 아리아와 듀엣, 감미로운 칸초네의 선율을 선사한다.

전화예매한 뒤 공연 당일 ‘본 안내문이 게재된 서울주보’ 지참시 30% 할인한다(주보 미지참시 차액 지불 / 주보 1부로 2인까지 할인가능).

위텔 주교 일기

위텔 주교 지음 | 한국교회사연구소 역주 | 각 2만 원(전 8권 16만 원)



제8대 조선교구장 위텔 주교가 교구장에 임명된 1890년부터 사망하기 직전인 1933년까지 직접 쓴 프랑스어 일기를 번역한 것이다. 위텔 주교 개인 신변에 관한 내용 외에 한국 교회의 성장과 변모뿐만 아니라 조선의 외교·정치·사회와 관련된 자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한국천주교회와 근대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이다. 위텔 주교가 수집한 서한이나 안내장, 전보, 초대장, 신문기사 등이 다양하게 실려 있다.